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진로성숙도가 중학생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최 영 란

2012년 8월

진로성숙도가 중학생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성 봉

최 영 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최영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8월

<국문 초록>

진로성숙도가 중학생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최영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성봉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학년에 따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연변 4개 시에 위치한 중학교의 986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908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임은미(1998)가 변안 타당화한 '학업동기유형 검사'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2001)의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에서 상관 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회귀 분석 등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에게서 나타난 진로성숙도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 및 자기이해를 제외한 기타 하위요인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학년은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 2학년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은 진로성숙도 및 자기이해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았다.

둘째, 중학생들에게서 나타난 학업동기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학업동기 및 학업동기의 하위유형인 자율적 동기, 사회적 동기, 무동기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동기는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3학년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학년은 자율적 동기가 높은 반면에 무동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1학년의 학업동기가 가장 높았다. 2학년은 자율적 동기는 가장 낮은 반면에 무동기가 가장 높아 전체 학년에서 학업동기가 가장 저조하였다.

셋째,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성숙도는 자율적 동기, 사회적 동기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무동기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넷째,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 및 자율적 동기, 사회적 동기, 무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는 자율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무동기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 중 계획성이 일관되게 학업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연변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가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과 학생들의 학업문제와의 관련성을 중국의 교육현장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4
3. 용어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6
1. 중학생의 진로성숙	6
2. 학업동기	15
3. 선행연구 고찰	18
III.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연구도구	26
3. 연구절차	30
4. 자료처리 및 분석	30
IV. 연구결과 및 해석	32
1.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차이 검증	32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32
학년에 따른 학업동기	34
2.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	35

3.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37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37
진로성숙도가 자율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38
진로성숙도가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39
진로성숙도가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40
V. 논의 및 제언	42
1. 논의	42
2. 제언	46
참고문헌	47
Abstract	52
부 록	55

표 목 차

<표Ⅲ-1> 예비조사 학생 분포	25
<표Ⅲ-2> 연구대상 분포	26
<표Ⅲ-3> 진로성숙도 검사내용	27
<표Ⅲ-4> 진로성숙도 검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28
<표Ⅲ-5> 학업동기 검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29
<표Ⅳ-1> 학년별 진로성숙도	32
<표Ⅳ-2> 학년별 학업동기	34
<표Ⅳ-3>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	36
<표Ⅳ-4>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37
<표Ⅳ-5> 진로성숙도가 자율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38
<표Ⅳ-6> 진로성숙도가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39
<표Ⅳ-7> 진로성숙도가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40

부 록 목 차

<부록 1>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56
<부록 2> 학업동기 검사도구	5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재한다.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 만족하고, 의미를 느끼며,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진로 선택이야말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선택을 위한 능력, 태도 등을 신장시켜 주는 진로교육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진로발달단계에 따르면 중학생 시기는 진로탐색단계로서 초등학교의 진로 인식단계를 지나 고등학교의 진로 준비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단계로서 이 단계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정확한 자기이해와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고 직업정보 및 탐색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계획을 세워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이현림, 2003).

그러나 대부분 중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분위기속에서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이 오로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한다. 특히 중국의 대부분 지역은 중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부재로 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흥미, 적성에 관계없이 점수에 맞추어 진학하게 된다. 그리하여 대학진학 후 학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갈등, 불안을 겪고 혼란을 느낀다(杨艳, 2009).

북경교육연구원(2000)이 87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과만족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42.1%가 자신의 다니고 있는 학과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학과 재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65.6%의 학생이 재선택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재선택의 이유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에 흥미가 없다’가 48.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중국 31개 지역의 175개 대학교 4555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과만족도조사(樊明成, 2011)에서는 50.9%의 학생들이 현재 다니는 학과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불만족의 이유 중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에 흥미가 없다’가 43.7%였다. 이러한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결과는 赵宏斌(2004), 赵锦山(2007), 중국교육부교육발전연구중심(2007)의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대학생의 학과 부적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선택기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학생들에게 중학교 시기에 정확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진로계획을 능동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도 중학교 시기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시기에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申仁洪, 郑溪璐, 2009)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시작하여야 하는 당면 우선 진로교육의 내용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을 수행하기 전에 진로성숙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파악된 진로성숙도에 따라 상이한 진로교육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Super(1974)는 진로성숙이 진로교육이나 직업지도의 핵심이며, 진로성숙 수준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로교육이나 직업지도에 필수적이라 하였다(김충기, 2005재인용).

하지만 중국은 90년대까지 국가가 직업을 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본격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이로 인해 진로성숙에 대한 연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彭妙, 2010).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진로성숙에 관한 논문은 대략 10여편(段发森, 2010)에 불과하였으며, 중국에서 학술연구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知网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진로성숙에 관한 논문을 조사한 결과 200여편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최혜, 2011). 이에 중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진로성숙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중학생 진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반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차적인 이유는 진로교육에 대한 가정, 학교 및 교사의 인식 부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남미애, 2001). 진로교과서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학업향상에 방해가 된다는 오해를 갖고 있고, 특히 대부분 학교교사들이 교과진도에 차질이 있다고 진로교육에 시간을 할당하기를 매우 꺼리며 진로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조미량, 2005; 김홍명, 2005). 그러나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김혜령, 1994; 한수경, 2004; 변해중, 2008; 김경연, 2010; 전정숙, 2010)을 살펴보면, 진로탐색이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연구의 출발점에 서있는 중국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한국의 선행연구(임은미·황매향, 2004; 이명숙, 2005; 조미량, 2005)에서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간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으나 각 하위영역의 상관성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김혜령, 1994; 한수경, 2004; 변해중, 2008; 김경연, 2010; 전정숙, 2010)에서 진로탐색이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 방면의 연구가 미흡한데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 학교상황과 학업과제, 그리고 가정환경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에 중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별도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고,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및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고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관계 및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1. 학년에 따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1-1. 학년에 따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학년에 따라 중학생의 학업동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2-1.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3. 진로성숙도가 중학생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설3-1.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진로성숙도는 자율적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진로성숙도는 사회적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4. 진로성숙도는 무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학업동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란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아의 이해 그리고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생애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각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 또는 발달의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의 진로성숙도검사에 의해 측정되는 점수를 의미하며 이를 ‘진로성숙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학업동기

인지주의 동기이론에 기초한 임은미(1998)의 견해를 수용하여 학업동기를 “당신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정의하고 학업동기 유형은 자율적 동기, 사회적 동기, 무동기로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은미(1998)의 학업동기검사에 의해 측정되는 점수를 의미하며, 이를 ‘학업동기’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고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관계를 검증하고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진로성숙도의 개념과 중학생의 진로발달 및 진로성숙 측정 도구, 학업동기의 개념과 학업동기의 유형을 고찰하고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선행연구 및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1) 진로성숙의 개념

1955년 Super가 ‘직업성숙의 차원과 측정’이라는 논문을 통해 직업성숙(Vocational maturity)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이란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이현림, 2003). 한국에서는 career maturity가 진로성숙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职业成熟, 生涯成熟, 职业生涯成熟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职业成熟으로 번역하고 있다(段发森, 2010). 吕巧娟(2010)은 生涯成熟으로 번역하는 것이 职业成熟으로 번역하는 것 보다 타당하다고 했다. 진로성숙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사용하므로 이에 관한 상이점들을 고찰해 본 다음에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진로성숙을 최초로 개념화한 Super(1955)는 진로성숙이란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하였으며, 진로성숙이 일어나는 5가지 차원(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개인의 진로성숙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속해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를 말하고 있다(곽효길, 2003재인용). Crites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진로선택의 자질,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진로선택의 현실성, 진로선택의 일관성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이재창, 2005). Gribbons와 Lohne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로 보고 진로성숙수준을 개인의 내적, 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과정, 직업정보, 흥미, 가치 등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Hoyt(1977)는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 양자를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로 보고 있다(김충기, 2000).

한국 학자들이 진로성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석민(1991)은 진로성숙을 자아 인식의 기초 위에서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할 때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진로와 관련된 발달과업수행과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임연 등(2001)은 진로성숙도를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아의 이해 그리고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생애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각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 또는 발달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로성숙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郑海燕, 张大钧(2006)은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장악하고 있는 진로발달단계에 알맞은 진로발달 목표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지식과 태도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段发森(2010)은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발달단계에 상응한 직업발달과업의 준비정도로써 지식준비, 능력습득, 개인태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체현된다고 했으며 吕巧娟(2010)은 개인의 진로발달과업의 준비도라고 정의했다.

이상에서 살핀 여러 학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진로성숙은 발달적 개념이다. 둘째, 진로성숙은 진로준비의 정도이다.

셋째, 내용상에서 보면 모두 태도와 능력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 정의한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진로성숙도를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아의 이해 그리고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생애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각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 또는 발달의 정도로 정의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의 진로성숙도검사의 태도영역과 능력영역을 중심으로 진로성숙도를 보고자 한다.

2) 중학생의 진로발달

진로성숙은 진로발달이론(career development theories)에서 시작된 것으로 진로발달이론은 인간발달의 개념을 직업지도에 도입한 것이다. 진로선택에 대한 발달이론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Ginzberg(1951)의 직업선택이론,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 Crites(1961)의 진로성숙이론, Tiedeman과 O'Hara(1963)의 이론 등이 있다. 여기서는 Ginzberg(1951)의 직업선택이론,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 Crites(1961)의 진로성숙이론을 토대로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

Ginzberg(1951)의 직업선택이론은 Buehler의 생애단계에 관한 연구의 영향을 받아 직업선택의 발달적 접근을 도입한 것이다. 직업선택은 인간 발달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정으로 환상적 단계(6세~11세), 시험적 단계(11~17세), 현실적단계(17세이후 성인기) 등 3개의 선택단계를 거쳐 직업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직업선택을 일회적인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정이며 이것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다음의 결정은 그 이전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시험적 단계(11~17세)는 진로 선택 과정에서 흥미, 능력, 가치가 고려되는

시기이나 현실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으며, 이 단계는 다시 네 개의 하위 단계인 흥미단계(11~12세), 능력단계(13~14세), 가치단계(15~16세), 전환단계(17~18세)로 구분된다. 중학생이 속하는 단계는 시험적 단계의 능력단계와 가치 단계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에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하며, 직업에 따라 보수나 훈련조건, 작업조건 등이 다르고 다양한 직업들의 존재와 직업 선택 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자신이 호감을 갖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그 직업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Ginzberg(1951)의 직업선택이론에 따르면 중학생단계는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에 대한 성취능력을 시험하는 단계이다.

(2) Super의 진로발달이론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은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을 비판하고 나온 이론으로 그의 진로발달 핵심은 진로 의식의 발달 과정이 바로 개인의 자아개념의 발달과 그것의 실현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자아실행 이론이다.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직업을 해석하며, 자아개념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해 나간다. 즉, 개인은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 가며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에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Super는 진로 발달단계를 성장기(출생~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5~64세), 쇠퇴기(65세 이후)로 구분하고 각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제의 독특한 행동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장기를 세 개의 하위단계 환상기(4~10세), 흥미기(11~12세), 능력기(13~14세)로, 탐색기를 잠정기(15~17세), 전환기(18~21세), 시행기(22~24세)로, 확립기를 시행기(25세~30세), 안정기(31~44세), 유지기(45~65세)로 구분하였다. Super(1990)는 진로 발달단계를 대순환으로 명명하고 각각의 발달단계마다 다시 반복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대순환과 소순환이 공존한다는

보다 역동적인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이현림, 2003). Super는 다섯 단계 중 좋아하는 직업에 대해 명료하고 구체적인 선택이 이루어져 직업에 들어가 직업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며 자아개념을 완성해 가는 탐색기와 확립기의 진로발달을 가장 중요시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가 그가 좋아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을 하고 그 직업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면서 자아개념을 완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었다.

Super에 의하면 중학생의 시기는 성장기 중 능력기(13~14세)와 탐색기 중 잠정기(15~17세)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진로선택에 있어 능력과 직업에서의 훈련조건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이 시기에 자신의 욕구, 흥미, 가치와 취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환상이나 토론, 일의 경험 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해보기도 한다.

(3) Crites의 진로발달이론

Crites(1961)는 Super의 직업선택이론에서의 일관성과 현실성의 영역에 직업선택의 태도와 능력의 영역을 더했다. 그는 진로발달이론으로부터 네 가지의 집단요인을 설정하고 그 집단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16개의 변인을 설정, 진로성숙도 검사(CMI)모형을 제시하였다. 진로성숙도의 영역을 내용과 과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 과정변인인 태도와 능력변인에 초점을 두고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데 관심을 두었다(김충기, 2000). Crites는 진로성숙수준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상관성이 있으며 중학교 2학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다.

이상의 진로발달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의 일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인식단계를 거치고,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결정을 앞둔 시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보다 구체화되고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성격특성, 흥미, 적성, 가치관, 학업성적, 직업에 대한 전망 등의 다양한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게 되는 시기로 진로탐색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자신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탐색하여 합리적인 진로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 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계획을 세워 보도록 조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중학생의 진로성숙 측정도구

진로성숙도가 ‘한 개인이 발달단계 상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 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진로성숙검사의 하위 영역 속에 반영된 ‘준비’의 하위 요소에 대하여 일관된 합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진로성숙의 세부 하위 요소에 대한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진로성숙도 검사들은 크게 ‘태도’와 ‘능력’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도구들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검사 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Career Maturity Inventory (CMI)

Crites(1965)는 객관적으로 채점이 가능한 직업발달 검사(Vocational Development Inventory : VDI)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성숙 모델의 태도영역을 측정하는 것으로 진로발달 과정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또 다른 하위 검사인 능력검사가 1966년에 진로성숙의 인지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되었다. 1973년에 그는 직업발달 검사를 개정하면서 이를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 CMI)라 명명하였다.

CMI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며, 태도척도는 진로결정의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준비도, 타협성으로 구성되며, 능력척도는 자기 이해, 직업 지식, 목표 결정, 계획, 문제해결로 구성된다.

이 도구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측정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개념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읽기 능력 검사들과 지나치게 높

은 관계가 있다. 즉 진로 의사 결정 과정이 언어적일 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 이해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Westbrook 외, 1980;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1, 재인용)

(2) 한국교육개발원(1991)의 진로성숙도 검사

장석민 외(1991)는 진로성숙이 인지적 영역(능력)과 정의적 영역(태도)으로 구성된다는 Crites의 CMI 모델을 근간으로 한국 문화를 고려하여 진로성숙 검사를 개발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진로성숙의 태도영역으로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을, 능력영역으로 직업세계 이해 능력, 직업선택 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한다.

진로성숙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모두 고려한 검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검사 개발에서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던 CMI와 마찬가지로 진로성숙의 인지적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 문항들이 많은 양의 읽기를 필요로 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어려운 직업 명칭 등이 사용됨으로써, 피험자의 읽기 능력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임언외, 2001).

(3) 중국 국내 진로성숙도 검사

林幸台(1997)는 Super의 진로발달검사를 수정하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그 하위요인은 직업태도(职业态度), 직업인지(职业认知)와 행동(行动) 세 측면을 포함하고 그 하위요소로 직업감수(职业感受), 직업신념(职业信念), 직업인식(职业认识), 사고범위(思考广度), 직업탐색(职业探索), 직업계획(职业规划)이 있다(吴敏志, 卢谢峰, 2010). 이 검사는 중국 국내에서 제작된 검사이긴 하나 측정대상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검사도구로 활용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刘慧(2004)가 제작한 진로성숙도 검사는 진로결정태도(职业决策态度) 12문항,

진로결정지식(职业决策知识)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로결정 태도의 하위요소로 능동성(主动性), 독립성(独立性), 자신감(自信), 공리성(功力性), 온정성(稳定性)을 포함하고, 진로결정지식의 하위요소로 직업세계지식(职业世界知识)과 직업자아인식(职业自我知识)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의 재검사신뢰도가 .60 이하인 하위척도가 네 개로 나타나 검사의 신뢰도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대부분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검사도구로 선정하지 않았다.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의 진로성숙도검사

이 검사는 기존의 연구들과 국내외 진로성숙 검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성숙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검사이다. 이 검사의 특징은 첫째, 진로성숙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일반 언어능력 혹은 읽기 능력의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진로성숙의 인지적 영역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한다. 셋째, 검사 개발과정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독특한 상황과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검사는 진로성숙을 태도와 능력 및 행동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고 태도영역의 하위요소는 독립성,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 능력영역은 자기이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직업에 대한 지식으로, 행동영역은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하위요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태도영역의 독립성이라 함은 단순히 부모나 교사 등의 의견이나 조언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의 조언이나 의견(때로는 기대도 포함)을 중요하게 참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주체는 자신이며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일에 대한 태도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편견이 없으며, 바람직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계획성은 미래와 현재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미래는 예측 가능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

재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능력영역의 하위검사는 자기이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 능력, 직업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된다. 자기이해는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의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를 의미한다. 자신의 한계나 장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모색하고 결정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진로 정보 활용 및 진로결정 능력은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함에 있어 원하는 정보원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등 적절한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들이다. 직업에 대한 지식은 현재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관해 실제로 알고 있는 정도를 스스로 평가해 봄으로써,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가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고 환상적인 것인지를 판단해 본다.

준비행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 혹은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정도를 말한다. 준비행동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의 현재의 진로관련 행동수준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생활의 양호도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결정된 진로 내용의 충실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중국 연변조선족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중국과 한국은 동양문화라는 점에서 국외의 다른 검사도구로 측정하기보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 할수 있는 한국의 검사도구가 국외의 다른 도구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CDI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이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를 본 연구의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2. 학업동기

1) 학업동기의 개념

인간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구체적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끔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동기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초점을 두어 왔다. 첫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둘째, 그것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셋째,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는 강도는 어떠한가? 넷째,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지속하게 하거나 포기하도록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처럼 동기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초점을 두는 기본적인 질문이 같긴 하지만 동기에 대한 관점은 심리학의 각 이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우선,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일차적 강화인자와 이차적 강화인자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의 동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반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흔히 의식수준 이하에서 작용하는 내적인 힘과 충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동기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 선택, 자기결정, 개인적 성장을 위한 노력, 혹은 자아실현 등을 강조한다. 또한 인지이론에서는 행동이란 단순히 과거에 그 행동이 보상 혹은 벌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사회학습이론에서의 동기에 대한 설명은 기대×가치이론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기란 두 개의 중요한 요소, 즉 개인의 목표도달에 대한 기대와 개인에게 주는 목표의 가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정종진, 2001).

학습이라는 것 역시 크게 보았을 때 인간 행동의 한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학습에서도 동기화가 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학습에 있어서 동기화는 학습의 원인적인 측면은 물론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학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시발적 기능 즉, 행동을 촉발시

키는 기능으로서 학습 정도를 유발시키고 학습활동을 개시시킨다. 둘째, 행동의 방향을 규정짓는 지향적 기능으로서 학습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보다 의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또 만족의 유인에 대해 강한 결합을 하게 한다.

학업동기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느냐 하는 것 즉, 인간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동기이론을 학교 학습에 적용시킨 개념으로써, 인지주의동기 이론에서는 “당신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정의된다(임은미, 1998).

본 연구에서는 인지이론에 기초하여 학교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 학업동기를 정의하고자 한다.

2) 학업동기유형

학자에 따라 학업동기에 대한 유형화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Deci와 Ryan(1985)은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동기를 가장 자율적인 동기로부터 가장 타율적인 동기에 이르기까지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로 나누었다(이유정, 2010재인용).

Vallerand 등(1992)은 다른 이론가들의 주장과 함께 특히 Deci의 개념을 통합하여 학업동기를 정의하고 유형화하였다. 학업동기를 자기결정성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자율성 정도에 따라 학업동기의 유형을 무동기 상태, 실패회피 동기, 상대적유능성 동기, 사회적성공 동기, 사회적가치동조 동기, 자기유능감 동기, 지적만족추구 동기, 지적성장추구 동기로 구분하였다. 무동기상태는 학과 공부의 의미를 아직 찾지 못하고 공부의 중요성을 거부하며, 학교 공부에 무관심함으로 인해 억지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다. 실패회피 동기는 억지로 학교에 다니는 정도는 줄었으나 학과 공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동기이다. 주로 체면치레나 사회적인 소외를 피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부모나 교사 등 중요타자의 처벌을 피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상대적유능성 동기는 남들에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기이다. 학과 공부를 잘 해냄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하므로 높은 학업성취를 경쟁적으로 추구한다. 사회적성공 동기는 학과공부 자체에 흥미를 갖지는 않으나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

해 자발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동기이다. 공부자체보다는 미래의 진학, 직업,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다닌다. 사회적 가치동조 동기는 공부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학과 공부를 하는 것에 갈등을 겪지 않는 동기이다. 공부하는 자기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공부를 자신의 본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자기유능감 동기는 지적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학과 공부에 임하는 동기다. 공부를 해내면서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고, 열심히 한 뒤에 어려운 과제를 풀어냈을 때 유능감을 맛보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기 자신의 평가에 충실하다. 지적만족추구 동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자체가 공부를 하는데 보상으로 작용하는 동기이다. 학교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성과보다는 공부하는 과정 자체에 만족을 느낀다. 지적성장추구 동기는 지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동기이다. 학과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발견해 내고 매일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흥미롭게 학과 공부에 임한다.

임은미(1998)는 Vallerand 등(1992)이 제시한 8개의 학업동기가 한국 학생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압축하여 분류하였다. 첫째, 자율적 동기는 공부를 하면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학업과제를 이해하는 데서 즐거움과 유능감을 느끼고, 도전적인 학업과제에 기꺼이 직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사회적 동기는 미래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말한다. 공부하는 것 자체에 의미나 만족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진학, 직업,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다닌다. 셋째, 무동기는 공부에 무관심하며, 공부하는 것이 가치롭다고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모나 교사 등의 중요타자들의 압력에 떠밀려서 또는 사회적 소외를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학교에 다닌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이론에 기초하여 학교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 학업동기를 정의하고 임은미의 학업동기 분류에 따라 학업동기의 유형을 사회적 동기, 자율적 동기, 무동기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1)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년(나이)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Super(1957), Crites(1974), Crites와 Semler(1967), Ansel(1971)를 비롯한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연령이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현옥, 1989 재인용). 이외에도 진로성숙도 검사도구의 점수가 고등학교 학년별로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으며(Crites, 1965; Herr & Erderlen, 1976; Mintzer, 1976; Smith & Herr, 1972; Tilden, 1978), 대학생의 경우, 높은 학년 일수록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는 연구(McCaffrey, Miller, & Winston, 1984)도 있다(임연 외, 2001 재인용).

한국에서도 진로성숙의 학년별(나이) 차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김현옥(1989)은 진로성숙도 관련변인을 연구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늘고 직업정보에 많이 접하게 되며 문제해결 능력이 커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장인규(1998)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태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능력 면에서 3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는 이 결과에 대하여, 태도는 정의적인 영역인 반면 능력은 인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진로발달의 준비기에 해당하는 3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이경애(2001)의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학년이 진로태도는 다소 높았으나 진로능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았다. 김미란(2004)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6학년이 4학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주희(2011)은 중학교 3학년이 1학년보다 독립성, 계획성,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김아름 외(2010)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5년 동안의 종단연구를 통해 진로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고했으며 신효정과 이문희(2011)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에서도 진로성숙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재희(2012)는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준비성과 결정성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탐색 및 적극적인 참여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진로성숙도가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연구들이 있다(유순화 외, 2006; 어윤경, 2008; 최수정, 2008; 김명숙, 2008; 송민경, 2011).

그러나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 수준이 높아지기는 하나, 그 발달이 체계적인 것은 아니라는 연구들(Friedberg, 1982; Hansen et al., 1973; Kelly, 1978)도 있다. 김남규(2000)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 흥미는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면서 높아지고, 6학년이 되면서 평균이 다소 낮아지는 현상을 보고하고 이는 환상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은미(2004)는 청소년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대한 단기 종단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성숙도 변화는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고, 중학생은 능력 영역과 진로준비 행동영역은 향상된 반면 태도 영역에서 진로성숙도의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정은(2004)은 학년별로 진로성숙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1학년과 3학년에 비해 2학년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년은 2학년이라고 밝혔다. 3학년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진로성숙도가 높을 것이라 하였고 2학년에 비해 1학년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에서 2학년은 진로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1학년은 진로교육 경험이 있으므로 중학생의 진로성숙은 학년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진로교육 경험 유무와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중학교 2학년의 진로성숙도가 현저히 낮았고 기타 학년들은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중학교 1, 2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차이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 원인에 대한 규명은 문헌자료로는 할 수 없으므로 진일보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최혜(2011)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2학년은 1학년보다 현저히 높으나 2학년과 3학년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교육제도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 해석했다. 2학년은 문과, 이과를

선택해야 시기이므로 진로에 대한 고민의 증가로 성숙도가 1학년보다 높을 것이나 3학년에 서는 온갖 정력을 시험공부에만 기울이다보니 진로에 대해 고민할 겨를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에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은 연구(이기학, 1992; 이기학, 한종철 1998)도 있었다. 박준호(1994)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학년 간에 진로성숙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양리리(2003)은 화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차이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최영순(2006)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을 정보화시대에는 연령이나 학년보다 개인이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와 개인의 지식수준의 양이 진로성숙도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김유나(2009)의 연구에서도 진로성숙의 평균은 1학년이 2학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진로성숙의 5개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程利娜(2010)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그 원인을 중국에서 중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입시교육과 전통적인 관념의 영향으로 중학생의 진로교육이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학년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에 대한 태도는 더욱 성숙된다고 보는 진로발달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결과이다.

2) 학년에 따른 학업동기의 차이

학업동기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제에 대한 흥미를 포함한 자발적 동기는 감소하고 성취결과에 대한 집착, 상대적인 비교경향, 학습된 무기력의 경향은 점차 강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Covington & Beery, 1976; Holt, 1964; Miller, 1982; Rholes, Blackwell, Jordan & Walters, 1980). Harter(1981)는 나이 어린 아동들은 자신의 성취 행동이 자신

의 완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나이든 아동들은 자신의 성취행동이 외적강화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자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교 초기에 특히 현저해지고, 중학교 초기에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Lepper 등(2005)과 Gottfried, Fleming과 Gottfried(2001)의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교육 연한이 길어질수록 내재적 동기는 줄어든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Gottfried, 등(2001)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점차적으로 학업에 대한 내재동기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Lepper 등(2005)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외재동기 수준을 측정하여 연구한 결과 내재동기 수준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3학년이 가장 높았고 8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재동기의 감소 현상은 학교 학습시 아동들에게 부과되는 끊임없는 외적 제약들과 수행과 강화인자 간의 유관관계의 누적된 결과이며,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더욱 통제를 가하고 선택을 줄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임은미, 이성진 (2001)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율적 동기는 감소되고 사회적 동기는 증가되며 무동기는 증가된다고 하였다. 김아영(2002)과 김태은, 현주(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타율적 동기가 가장 낮고 중학생이 가장 높으며, 반면에 자율적 동기는 초등학생들이 제일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김희수(2003)는 중학교 2학년 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동기 비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재적동기가 감소되는 반면 사회적동기와 무동기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유정(2010)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학업동기 비교에서 중학생은 내재적 동기는 낮은 반면 외재적 동기와 무동기는 초등학생에 비해 높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규민 등(2006)의 연구에서도 자율적 동기는 남녀 학생집단 모두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았고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낮아졌으며, 무동기적 특성은 남녀 집단 모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높아졌다. 김아영(2006)의 3600여명 중학생 표본에서 얻어진 자료에 의하면 무동기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면서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김아영(2008)은 한국 청소년들의 자율적 동기 발달의 경향을 알아본 결

과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외적조절 동기가 가장 낮았고, 내재동기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영재집단을 제외하고는 외적조절 동기와 내재동기가 비슷하게 가장 낮았으며 영재집단에서는 내재동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외적조절 동기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재동기가 낮았다. 이상의 연구는 한국학생의 학업동기의 발달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율적 동기는 감소되는 반면, 무동기는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아영(2008)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무동기가 증가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즉, 한국 중·고등학교 현장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무기력을 학습시키고 실패에 대한 내성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무동기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은 성장 발달을 하는 동안 외적 규율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해 나가기 때문에 학년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외적인 조절 유형으로부터 점차 내적인 조절 유형으로 동기 유형이 변화하므로 고학년에서는 내재동기가 내사된 조절 동기보다 높게 나타나야 하며 또한 저학년 학생들에서 보다는 고학년에서 내재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yan & Deci, 2000). Stipek(1984)은 아동기보다 학업동기가 저하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장기적으로 교육적 직업적 포부를 고려하기 시작한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성취가 보다 가치롭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Zimmerman과 Martinez-Ponz(1990)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동기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이명숙, 2005재인용). 북미에서 캐나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Ratelle, Guay, Larose, & Senecal, 2004)에서는 확인된 조절, 내재동기, 내사된 조절, 그리고 외적 조절의 순서로 평균치가 높았다(김아영, 2008 재인용). 이명숙(2005)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학업동기에 대한 종단적 분석 결과, 자율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정적 향상을 보였고 무동기는 부적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동기의 자율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관계

김혜령(1994)은 학교 교육에서는 학업동기를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유용하게 방향 잡아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학습동기 유발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 진로 탐색은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학습에의 의지를 심어 준다고 보았고, 김충기(1991)는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내용 정보를 터득하면 교육과 훈련과의 관계를 자각하게 됨에 따라서 학교생활을 뜻있고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어 면학 기풍이 진작 될 것이며 성실한 학교생활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수경(1995)은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진로에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며,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하여 쉽게 학습에 몰두할 수 있으나, 학습동기가 낮은 학습자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통찰력이 없는 무목적, 무기력한 사람으로서 사소한 장애에도 곤란감을 느껴 쉽게 학습을 중단하고 만다고 했다. 김현옥(2006)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진로탐색 집단상담은 진로성숙도 태도 영역과 학습동기 중 내재적 동기를 촉진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과 학업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변해중, 2008; 전정숙, 2010; 김경연, 2010; 이상열, 2012)들이 있다. 이상의 연구와 같이 진로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향상을 보는 연구는 많지만 진로성숙과 학업동기의 관계를 직접 밝혀낸 연구는 많지 않다.

황매향과 임은미(2004)는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연령별, 성별, 학습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확인된(강종구, 1986; 박범덕, 1989; 이영숙, 1997; 이종훈, 1994; 이종홍, 1993;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Benschhoff, Kroeger, & Scalia, 1990)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관계를 밝혔는데 진로성숙도는 무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자율적동기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명숙(2005), 조미량(2005)의 연구에서도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각 하위영역의 상관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매향, 임은미(2004)에서는 계획성과 자율적 동기가 정적 상관을, 계획성과 무동기가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이명

숙(2005)의 종단 연구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적동기가 정적 상관을 독립성과 무동기는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었으며 조미량(2005)의 연구에서는 독립성, 계획성이 각각 자율적동기와 정적상관을, 무동기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진로성숙과 학업동기의 상관관계는 확인되나 하위영역의 상관관계에서 불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중국에서는 진로성숙과 학업동기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본 연구의 연구방법 즉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절차, 자료분석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연구대상

1) 예비조사 연구대상

예비조사에서의 연구대상은 중국 연길시 모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구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예비조사 학생 분포

단위: 명(%)

학년	성별		전체
	남	여	
2학년	15(21.1)	19(26.8)	34(47.9)
3학년	18(25.3)	19(26.8)	37(52.1)
전체	33(46.4)	38(53.6)	71(100)

2) 본 조사 연구대상

표집방법은 두단계 유층표집으로 먼저 학교를 표집하고 그 학교의 학급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연구대상은 중국 연변의 연길시에 소재한 조선족 중학

교 3개, 룡정시, 훈춘시, 도문시에 소재한 조선족중학교 각각 1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98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985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누락된 문항이 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제외하여 최종 908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407명으로 연구대상의 총 44.8%이었고, 여학생은 501명으로서 총 55.2%였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은 304명으로 33.5%, 2학년은 362명으로 39.9%, 3학년은 242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26.6%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성별, 학년별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대상 단위: 명(%)

학년	성별		전체
	남	여	
1학년	141(15.5)	163(18.0)	304(33.5)
2학년	157(17.3)	205((22.6)	362(39.9)
3학년	109(12.0)	133(14.6)	242(26.6)
전체	407(44.8)	501(55.2)	908(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진로성숙도검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능력영역에서 직업에 대한 지식을 제외한 후 일부 수정

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의 문항은 태도영역 39문항, 능력영역 31문항, 총 70개 문항으로, 응답방식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다. 검사도구의 하위요인의 측정내용은 <표Ⅲ-3>과 같다.

<표 Ⅲ-3> 진로성숙도의 측정내용

영역	하위요인	측정내용
태도	독립성	진로결정의 책임을 수용하고,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려는 태도
	계획성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태도
	일에 대한 태도	직업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
능력	자기이해	능력, 흥미, 가치, 신체적 조건, 환경적 제약 등 개인이 진로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 정도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검사도구를 개발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신뢰도 Cronbach'α 값의 범위는 .68~.96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산출 결과 Cronbach'α 값은 .92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의 하위요인별 Cronbach'α는 .71~.88이었으며 <표Ⅲ-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II-4>진로성숙도 하위영역 및 신뢰도계수 n=908

영역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Cronbach' α
태도	독립성	4,8,11,14,18,21,24,27, 34,37,44,46,48	13	.71
	계획성	1,5,15,19,25,28,31,38, 41,50,52,53,54	13	.79
	일에 대한 태도	2,6,9,12,16,22,29,32,35, 39,42,49,51	13	.74
	전체		39	.87
능력	자기이해	3,7,10,13,17,20,23,26, 30,33,36,40,43,45,47	15	.82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55~70	16	.88
	전체		31	.89
진로성숙도			70	.92

* 밑줄 친 문항이 역산문항임

2) 학업동기 검사

본 연구에서는 학업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Vallerand와 Bissonnette(1992)의 '학업동기유형척도'와 Vallerand 등 (1992)에 제시된 학업동기 개념을 토대로 하여 임은미(1998)가 변안 타당화한 '학업동기유형검사'를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1에서 5

까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되어 있고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학업동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동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학업동기 검사의 3가지 하위요인은 자율적 동기, 사회적 동기, 무동기로, 각 하위 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율적 동기는 공부를 하면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학업과제를 이해하는 데서 즐거움과 유능감을 느끼고, 도전적인 학업과제에 기꺼이 직면한다. 사회적 동기는 미래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공부하는 것 자체에 의미나 만족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진학, 직업,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다닌다. 무동기는 공부에 무관심하며, 공부하는 것이 가치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부모나 교사 등의 중요타자들의 압력에 떠밀려서 또는 사회적 소외를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학교에 다닌다.

검사도구를 개발한 임은미(1998)가 보고한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무동기 .93, 자율적 동기 .96, 사회적 동기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 실시 후의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Cronbach' α 는 .94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를 제시하면 <표 III-5>과 같다.

<표 III-5>학업동기 검사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α 계수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계수
무동기	16문항	1,2,13,14,15,16,27,28,29,30,41, 42,43,44,55,56	.94
자율적동기	32문항	4,5,6,7,8,9,10,11,18,19,20,21,22 23,24,25,32,33,34,35,36,37,38, 39,46,47,48,49,50,51,52,53	.96
사회적동기	8문항	3,12,17,26,31,40,45,54	.85
전체		56문항	.94

3. 연구절차

1) 본 조사를 실시하기 앞서 학생들의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와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0일 1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어법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되는 단어를 질문하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문지의 단어를 수정하였다.

2) 2011년 7월 13일에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2, 3학년 중학생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곧바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성의한 응답을 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67부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3) 2011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학교의 협조를 얻어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설문지의 내용에 관한 개괄 및 설문지의 목적, 대상, 진행방법 등을 조사를 의뢰하는 학교의 심리건강교사에게 설명한 후 심리건강 교육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곧바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25~30분 정도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 중 무성의한 응답을 한 설문지와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908부를 SPSS 18.0 프로그램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 3)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 4)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하위영역별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차이 검증

1)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가설1-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표IV-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IV-1> 학년별 진로성숙도

종속변인	1학년 ^a (n=304)	2학년 ^b (n=362)	3학년 ^c (n=242)	F	사후 비교
	M (SD)	M (SD)	M (SD)		
태도	46.94 (6.79)	46.09 (6.37)	47.86 (6.39)	5.38**	c>b
계획성	45.15 (6.52)	43.53 (6.99)	45.06 (6.00)	6.28**	a>b c>b
일에대한 태도	49.43 (6.32)	47.87 (6.97)	50.07 (7.39)	8.46***	a>b c>b
전체	141.53 (16.06)	137.49 (16.72)	143.00 (16.90)	9.26***	a>b c>b
능력	55.22 (8.47)	54.21 (8.50)	55.21 (7.19)	1.66	
정보활용및 진로결정	53.44 (9.09)	53.58 (10.32)	57.85 (9.50)	17.72***	c>a c>b
전체	108.66 (15.02)	107.79 (16.42)	113.06 (14.59)	9.04***	c>a c>b
진로성숙도	250.19 (28.38)	245.28 (29.79)	256.05 (26.75)	10.39***	c>b

p<.01, *p<.001

<표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F=10.39, p<.001$)가 있었다. 진로성숙도는 3학년($M=256.1, SD=26.8$)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cheff'e 검증결과 1학년($M=250.2, SD=28.4$)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2학년($M=245.3, SD=2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분석한 결과 2학년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요인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F=9.26, p<.001$)가 있었으며 3학년($M=143, SD=16.9$), 1학년($M=141.5, SD=16.1$), 2학년($M=137.5, SD=16.7$)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 1학년과 2학년, 3학년과 2학년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1학년과 3학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태도요인은 2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요인의 모든 하위요인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성($M=47.86, SD=6.39$)과 일에 대한 태도($M=50.07, SD=7.39$)는 3학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Scheff'e 검증결과 1학년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계획성은 1학년($M=45.15, SD=6.52$)이 가장 높았으며 3학년($M=45.06, SD=6.00$)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2학년($M=43.53, SD=6.9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태도요인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1학년과 3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학년에서 2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전체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9.04, p<.001$)가 있었으며, 3학년($M=113.1, SD=14.6$), 1학년($M=108.7, SD=15.0$), 2학년($M=107.8, SD=16.4$)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 3학년은 1,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1학년과 2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능력요인의 하위요인에서 자기이해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에서는 3학년($MD=57.9, SD=9.5$), 2학년($MD=53.6, SD=10.3$), 1학년($MD=53.4, SD=9.1$) 순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과 1학년, 3학년과 2학년 사이에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1학년과 2학년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능력전체 및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은 3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이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들에게서 나타난 진로성숙도를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를 제외한 기타 하위요인은 학년별 차이가 있었다. 3학년 능력전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성숙도 및 기타 하위요인에서는 1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학년은 진로성숙도 및 자기이해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학년에서 진로성숙도가 가장 낮았다.

2) 학년에 따른 학업동기의 차이

가설1-2. 중학생의 학업동기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학업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Scheff'e 검증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 학년별 학업동기

종속 변인	1학년 ^a (n=304)	2학년 ^b (n=362)	3학년 ^c (n=242)	F	사후 비교
	M (SD)	M (SD)	M (SD)		
자율적 동기	3.38 (0.66)	3.23 (0.68)	3.32 (0.71)	4.34*	a>b
사회적 동기	3.52 (0.75)	3.48 (0.78)	3.78 (0.69)	12.62***	c>a c>b
무동기	2.05 (0.75)	2.31 (0.77)	2.27 (0.92)	9.27***	b>a c>a
학업 동기	3.39 (0.49)	3.26 (0.51)	3.35 (0.45)	6.25**	a>b

*p<.05, **p<.01, ***p<.001

<표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동기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6.25, p<.01)가 있었으며, 1학년(M=3.39, SD=0.49), 3학년(M=3.35, SD=0.45), 2학년(M=3.26, SD=0.51) 순이었다. Scheff'e 검증결과 1학년과 3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1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2학년의 학업동기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동기의 하위유형별로 보면 자율적 동기는 1학년(M=3.38, SD=0.66), 3학년(M=3.32, SD=0.71), 2학년(M=3.23, SD=0.68) 순이었고 1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3학년과 1학년, 3학년과 2학년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동기는 3학년(M=3.78, SD=0.69), 1학년(M=3.52, SD=0.75), 2학년(M=3.48, SD=0.78) 순이었고 3학년은 1,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1학년과 2학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무동기는 2학년(M=2.31, SD=0.77), 3학년(M=2.27, SD=0.92), 1학년(M=2.05, SD=0.75) 순이었고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1학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중학생들에게서 나타난 학업동기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학업동기 및 학업동기의 하위유형인 자율적 동기, 사회적 동기, 무동기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동기 및 자율적 동기는 1학년이 가장 높고 사회적 동기는 3학년이 가장 높으며 2학년은 무동기가 가장 높았다. 즉 1학년은 자율적동기가 높은 반면에 무동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1학년의 학업동기가 가장 높았다. 2학년은 자율적 동기는 가장 낮은 반면에 무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동기가 전체 학년에서 가장 저조하였다.

2.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상관관계

가설2-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IV-3>와 같다.

<표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1$) 정적상관($r = .45$), 즉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인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진로성숙도의 태도전체는 사회적동기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r = .44$), 무동기와 높은 부적상관($r = -.53$)을 보이고 능력전체는 자율적동기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r=.53$)을 보인다. 즉 능력요인은 자율적동기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태도요인은 무동기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

진로성숙도 모든 하위요인은 자율적동기, 사회적동기와 각각 유의미한($p<.01$) 정적상관을 보이며,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을 제외한 하위요인은 무동기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율적동기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r=.51$)을 보이는 요인은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이고, 사회적동기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r=.47$)을 보이는 요인은 계획성이며 무동기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r=-.54$)을 보이는 요인은 일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의 하위유형인 자율적 동기, 사회적 동기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무동기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인다. 즉 진로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자율적 동기, 사회적 동기는 높아지며 반면에 무동기는 저하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표IV-3>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

n=908

구분	학업동기				
	자율적 동기	사회적 동기	무동기	전체	
태도영역	독립성	.144**	.251**	-.365**	.379**
	계획성	.434**	.469**	-.416**	.456**
	일에 대한 태도	.235**	.364**	-.539**	.561**
	전체	.326**	.436**	-.532**	.563**
능력영역	자기 이해	.404**	.381**	-.260**	.297**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507**	.461**	-.057	.109**
	전체	.532**	.490**	-.173**	.224**
진로성숙도		.478**	.518**	-.402**	.448**

** $p<.01$

3.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진로성숙도전체 및 하위 요인들이 학업동기 및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설3-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진로성숙도 및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업동기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은 실시했는데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B	β	t	R^2	F
(상수)	.86		7.35***		
진로성숙도	.69	.58	21.28***	.333	452.96***

종속변수: 학업동기, *** p<.001

<표IV-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eta=.58(t=21.28, p<.001)$ 로서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R^2 은 .333으로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33.3%이며 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452.96, p<.0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성숙도가 자율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설3-2.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자율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이 자율적 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율적 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이 자율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자율적 동기						
		B	β	t	R ²	ΔR^2	F	p
	(상수)	(1.39)	.	(12.6 ^{***})				
1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56	.51	17.7 ^{***}	.257	.257	314.2 ^{***}	.000
	(상수)	(.72)		(5.2 ^{***})				
2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43	.39	12.2 ^{***}	.301	.045	196.3 ^{***}	.000
	계획성	.33	.24	7.7 ^{***}				

종속변수: 자율적동기, ***p<.001

<표IV-5>에 의하면 회귀분석 결과 두 개의 모델이 있으며 모델 1에 의하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학업동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이며 $\beta=.51(t=17.7, p<.001)$ 로서 자율적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²=.257로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이 자율적 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25.7%이며 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314.2, p<.001)하였다. 모델 2에 의하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과 계획성이 자율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beta=.39, p<.001$), 계획성($\beta=.24, p<.001$) 순이었으며 이 두 변인이

자율적 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30.1%로 나타났다.

즉,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계획성은 자율적 동기에 의미있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학생의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계획성이 높을수록 자율적동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진로성숙도가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설3-3.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사회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이 자율적 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IV-6>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이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사회적 동기						
		B	β	t	R ²	ΔR^2	F	p
1	(상수)	(1.19)		(7.93 ^{***})				
	계획성	.70	.47	15.98 ^{***}	.22	.22	255.5 ^{***}	.000
2	(상수)	(.68)		(4.43 ^{***})				.000
	계획성	.47	.32	9.95 ^{***}	.29	.07	184.8 ^{***}	.000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	.37	.30	9.45 ^{***}				

종속변수: 사회적 동기, *** p<.001

<표IV-6>에 의하면 회귀분석 결과 두 개의 모델이 있으며 모델 1에 의하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계획성이며 $\beta=.47(t=15.98, p<.001)$ 로서 사회적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²=.22로 계획성이 사회적 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22%이며 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255.5, p<.001) 하였다. 모델 2에 의하면 계획성

에 더불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이 사회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면 계획성($\beta=.32, p<.001$),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beta=.30, p<.001$) 순이었으며 이 두 변인이 사회적 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즉,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계획성,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은 사회적 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중 계획성,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동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진로성숙도가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설3-2.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무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이 무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무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이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단 계	독립변인	무동기						
		B	β	t	R ²	ΔR^2	F	p
1	(상수)	(5.3)		(32.7 ^{***})				
	일에 대한 태도	-.82	-.54	-19.3 ^{***}	.29	.290	370.7 ^{***}	.000
2	(상수)	(5.71)		(32.2 ^{***})				
	일에 대한 태도	-.68	-.45	-13.5 ^{***}	.311	.020	204.1 ^{***}	.000
	계획성	-.27	-.17	-5.2 ^{***}				

종속변수: 무동기, *** p<.001

<표IV-7>에 의하면 회귀분석 결과 두 개의 모델이 있으며 모델 1에 의하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무동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일에 대한 태도이며 $\beta = -.54 (t = -19.3, p < .001)$ 로서 무동기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29$ 로 일에 대한 태도가 무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29%이며 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 = 370.7, p < .001$) 하였다. 모델 2에 의하면 일에 대한 태도에 더불어 계획성이 무동기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면 일에 대한 태도($\beta = -.45, p < .001$), 계획성($\beta = -.17, p < .001$) 순이었으며 이 두 변인이 무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31.1%로 나타났다.

즉,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일에 대한 태도와 계획성은 무동기에 의미있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중 일에 대한 태도, 계획성이 높을수록 무동기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고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검증하고,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첫째, 진로성숙도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태도전체 및 그 하위요인인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는 1, 3학년은 각각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1학년과 3학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독립성은 3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태도전체 및 그 하위요인의 학년별 비교에서 2학년은 가장 낮았다. 이는 정정은(2004)의 연구결과에서 밝힌 1학년과 3학년에 비해 2학년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년은 2학년이라고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는 2학년이 진로교육을 받지 않고 기타 학년은 진로교육을 받았기에 진로교육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로 해석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은 모든 학년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2학년이 기타 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진일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진로성숙도의 능력전체 및 그 하위요인의 학년별 차이에서 보면 능력전체는 3학년이 가장 높아 1, 2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하위요인인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은 3학년이 기타 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자기이해는 학년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채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중국의 교육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앞으로 진로교육에서 이 방면의 교육에 중점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3학년이 정보활용 및 진로결정능력이 높은 것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이므로 진로에 대한 고

민이 1, 2학년에 비해 많아 진로성숙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총적으로, 진로성숙도에서 자기이해를 제외한 기타 요인은 학년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발달이 체계적인 것은 아니라는 연구들(Friedberg, 1982; Hansenetal, 1973; Kelly, 1978; 김남규, 2000; 임은미, 2004; 최혜, 2011)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은 연구(이기학, 1992; 이기학, 한종철 1998; 박준호, 1994; 양리리, 2003; 최영순, 2006; 김유나, 2009; 程利娜,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학년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에 대한 태도는 더욱 성숙된다고 보는 진로발달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결과였다.

둘째, 학업동기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학업동기 전체는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동기 하위요인 별로 보면 무동기는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동기, 자율적 동기는 2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동기는 3학년이 가장 높고 자율적 동기는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무동기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인간은 성장 발달을 하는 동안 외적 규율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해 나가기 때문에 학년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외적인 조절유형으로부터 점차 내적인 조절 유형으로 동기 유형이 변화한다고 주장(Ryan & Deci, 2000)하는 자기결정성이론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동기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한 Zimmerman과 Martinez-Ponz(1990), 북미에서 캐나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Ratelle, Guay, Larose, & Senecal, 2004)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무동기가 증가한다는 한국의 선행연구들(임은미, 이성진, 2001; 김아영, 2008; 김태은, 현주, 2007; 김희수, 2003; 이유평, 2010)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연구결과와 달리 중국이나 한국은 모두 무동기가 학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국이나 한국 학생들보다 짧고, 방과 후에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

교에 있는 시간의 증가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방과 후에도 교과서 위주의 지식 교육을 받으면서 입시준비를 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풍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패를 누적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동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본다.

2)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관계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간은 물론 이들의 하위 요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는 무동기와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자율적 동기, 사회적동기와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랑(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황매향, 임은미(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황매향, 임은미(2004)의 연구는 진로성숙도와 사회적 동기는 정적상관을 보이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사회적 동기와의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미랑(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별 학업동기와 관계를 보면 진로성숙도 태도영역에서 계획성은 무동기와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자율적 동기, 사회적동기와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성숙도 태도 요인 중 학업동기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조미랑(2005), 황매향, 임은미(2004)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수록 자신의 학업도 보다 주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진로성숙도를 높여준다면 무동기 수준이 감소하여 역지로 학교에 다니는 등의 요소를 제거해 주며, 자율적, 사회적 동기 수준을 증가시켜 학교에 다니며 가치와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성공적인 진학 및 성공을 위해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동한 국가, 연구대상의 차이로 인하여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및 이들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정도는 기존 한국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상관의 정도보다 높은 수치였는데

유독 정보활용 및 의사결정과 무동기의 상관은 기존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하위요인의 상관에서 차이가 있고 상관이 수치가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는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는 자율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에 정적 영향을, 무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계획성은 일관되게 학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교육이나 진로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인다면 학업동기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특히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게 하는 계획성을 높이는 것이 학업동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율적 동기는 감소하고 무동기는 증가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무동기 방지 방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일에 대한 태도와 계획성이 무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에 대한 태도와 계획성을 높이는 것으로 무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무동기 방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정적관계 및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학교 현장에서 진로성숙도를 높여주는 진로교육이 학업성취도를 방해하는 변인이 아님은 물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중학교단계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연변에 소재하는 6개 학교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고 일반화시키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질문지에 의해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관계 및 영향을 밝혔으므로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의 변화량의 관계를 밝힌다면 기타 변인의 영향을 좀 더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의 검사도구를 신뢰도 검증만 하고 타당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결과도 측정도구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 본토에 맞는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시급히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가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중학교 2학년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가 기타 학년에 비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 외(2006). **중학생용 적성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중앙고용정보원 자료.
- 김경연(2010).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학업동기 유발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규(2000). **직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감이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2009). **중등학생의 가족체계 지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1994).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2004). **초등학교 아동들의 진로인식 수준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 외(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아영, 신영희(2005). **중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적 자기조절 동기유형과 실패내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5(3), 65-79
- 김아영(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14(1), 111-134.
- 김아영(2010). **학업동기**. 서울: 학지사.
- 김유나(200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평(1992).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교육관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현(2004). **학습동기향상 훈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동기 및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김충기(2005).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한국학술정보(주).
- 김택희(1992).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심리, 사회적변인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은, 현주(2007). 학교급별 학업능력에 대한 학습효능감, 학습동기화, 성취목표 지향성의 효과. **교육심리연구**, 21(1). 185-207.
- 김홍명(2005). 다중지능을 적용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진로성숙,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2003). 가정의 과정환경과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곽효길(2003). 단기과정 진로탐색활동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미애(2001). 초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모색. **진로교육연구**, 14. 17-40.
- 류미혜(2009). 부모의 학업기대와 중학생의 학업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기, 이종욱, 홍승표(2005).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19(3), 699-717
- 변해중(2008).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업동기 및 희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민경(2011). 청소년기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329-347.
- 신효정(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 양리리(2003). 학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윤경(2008).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 변화에 대한 다층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 오은경(2003). 사회적 지지와 의사결정유형,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순화(2006). 과학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상담학연구**, 7(2).

- 이경애(2001).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한종철(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10(1).
- 이선민(2006). **대학생의 비학업적 자아개념과 귀인성향이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 이명숙(2005). **여고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분석**.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정(2010). **전환기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탐색**.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201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2009).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진로스트레스 조사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2005).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문음사.
- 이재희(2012).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외](2003). **현대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임연 외(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은미(2004). **청소년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교육학연구**, 42(3).
- 임은미, 이성진(2001). **중·고등학생의 학업동기 구조**. **아시아교육연구**, 2(1), 89-111.
- 장석민 외(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인규(1998). **중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성숙도 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진(2007).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따른 성취압력과 학업성취의 관계: 학업동기, 학습태도, 학업적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정숙(2010). **진로지도가 학업성취별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란(200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은(2004).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진(2001). **학교학습과 동기**. 서울: 교육과학사.
- 조미랑(2005).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연호(2009). **학업동기와 학습조력형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순(2006). **중학생의 낙관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경(2004).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능력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임은미(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 연구: 18(3)**, 177-191.
- 卜荣华(2006). **大学生学习动机现状的调查研究**. 安徽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程利娜(2010). **普通高中学生职业成熟度的调查研究**. 德育与思想研究, 2010(25)
- 丛聪,陈妍(2006). **中学生学习动机、学习策略与学业成绩关系综述**. 吉林省教育学院学报, 2006(07)
- 段发森(2010). **青年学生职业成熟度量表的编制及上海地区常模的建立**.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樊明成(2011). **我国大学生专业满意度调查分析**. 教育学期刊, 2011(10)
- 简福平,韩红艳(2006). **学习动机研究发展趋势综述**. 内蒙古师范大学学报(教育科学版), 2006(07)
- 竭艳霞(2007). **高中学生学习动机的调查**. 辽宁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李炳煌(2005). **学习动机与学业绩效关系研究综述**. 湘潭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
- 刘慧(2011). **中学生职业成熟度发展特点研究**. 西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吕巧娟(2010). **中学生情绪智力, 父母教养方式, 自我同一性与生涯成熟度的关系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荣巨兵(2006). **中学生学习动机、情绪智力与学业成绩关系研究**.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申仁洪, 郑溪璐(2009). 论生涯发展观视角下初中生职业意识的培养. 教学与管理, 2009(06)
- 石学云(2005). 学习障碍学生社会支持、学习动机与学业成绩的关系研究. 中国特殊教育, 2005(09)
- 王佳权(2007). 大学生师生关系、学习动机及其关系研究. 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王荣山(2007). 大学生职业价值观、生涯决策自我效能与职业成熟度的关系研究. 陕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杨艳(2009). 团体职业生涯辅导对高中生职业成熟度的实验研究. 山西大学硕士学位论文.
- 吴彬·张智勇(2006). 大学生性别角色与职业成熟度的关系.
- 张忠锋(2002). 影响初中生学习动机的外部因素研究. 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郑海燕(2006) 大学生职业成熟度结构及其发展特点. 西南大学硕士学位论文.
- 朱云立(2003). 职业成熟度理论及其在大学生中的应用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赵宏斌(2004). 人力资本投资收益——风险与大学生择业行为. 北京师范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4(3)

<Abstract>

Career maturity's influence on academic motivation for middle schoolers.

Cui, Ying-La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is study is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 career and any correlation between maturity and academic motivation, career maturity will have any impact on the academic motivation and aims to illuminate.

To achieve more than one research study in research issues are as follows:

[Study problem 1] depending on the grade and academic motivati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career maturity the difference?

[Study problem 2]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f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motivation, what relationship?

[Study problem 3] junior high school course of study, what is the effect on the motivation and the maturity is?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People's Republic of China located in the four Swedish Junior's 986 people, targeted at class time conducting a survey and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2.

analysis of the final results of the call 908. Research tool is not the u.s. (1998) is at accountable and ' academic motivation time type checking '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01) used a ' career maturity test. This study collected materials are placed in care analysis, SPSS 18.0 ANOVA, regression analysis, and a member of the statistical analysis.

Here is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ho appeared in his career, career maturity and grade level analysis of self understanding, except for the other child, be aware that the u.s. had a different grade level factors. The third year is the highest in the ability to determine the course and take advantage of the information got 1, 2, and note that the u.s. had a difference, respectively. 2 year career maturity and his understanding of all factors except at most low.

Second,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ho appeared in an analysis of the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grade level of motivation motivation and academic motivation, social motivation, autonomous subtypes are unmotivated. differences of note that grade level The highest academic motivation freshman and sophomore remained statistically difference was, for the third year and had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First grade is the lowest non-autonomous motivation high, on the other hand, appeared to be the motive of the first grade was the highest academic motivation. The second year is the most autonomous motivation over non-motivated, on the other hand, low grade, academic motivation, said most low activity as a whole.

Third,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motivation of correlation analysis of academic motivation and keep track of the maturity and seemed to matter. * keep in mind that the static Career maturity of autonomous motivation, social motivations and the definite significance, of the United States and was a talisman of the United States note that the unmotivated.

Fourth, career maturity, motivation, academic motivation, and autonomous, social motivation and unmotivated in mind-affecting. Career maturity, be aware that the autonomous motivation and social motivation, affect us definite and

improper influence on the mind of unmotivated. Career planning of the maturity of the child zone consistently affects the academic motivation.

This research is targeted at local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in Swedish, and academic motivation and career maturity is academic motivation relationship,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unseling and by showing that the student's academic problems and the releva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education was present at the scene.

질문지

이 질문지는 중학생의 진로성숙과 학업동기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한 학업생활을 돕기 위한 연구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 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질문에 나오는 모든 문항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으니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1년 10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최영란

♥ 주의할 점 ♥

1. 질문지에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2. 시간제한은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읽고 답해 주십시오.
3. 모든 문항의 **답은 1개만 표시**하도록 합니다.
4. 말의 뜻이 어려우면 선생님께 질문하십시오.

※ 다음 사항에 √ 표를 해주십시오.

1. 성별: 남() 여()
2.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3. 소속학교: ()

부록 1. <진로성숙도 검사>

이 검사는 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것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의 진로를 설계하는 일은 중요하다.	1	2	3	4	5
2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1	2	3	4	5
3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4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1	2	3	4	5
5	장래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6	내게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 따위는 갖지 않겠다.	1	2	3	4	5
7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8	부모님이 내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라고 결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1	2	3	4	5
9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 상관없다.	1	2	3	4	5
10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보곤 한다.	1	2	3	4	5
11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1	2	3	4	5
12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1	2	3	4	5
13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14	내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다.	1	2	3	4	5
15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1	2	3	4	5
16	어떤 직업을 갖는가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17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18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5
19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0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자주 생각해보곤 한다.	1	2	3	4	5
21	진로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1	2	3	4	5
22	직업은 한 개인이 타인 및 사회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통로이다.	1	2	3	4	5
23	나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1	2	3	4	5
24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해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지 않겠다.	1	2	3	4	5
25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생각하고(계획하고) 있다.	1	2	3	4	5
26	내 성격에 대하여 잘 안다.	1	2	3	4	5
27	내 희망과 다르더라도,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1	2	3	4	5
28	교과공부,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의 흥미나 적성을 알아볼 것이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9	결혼 후에도 여성이 직장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2	3	4	5
30	나는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다.	1	2	3	4	5
31	학교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진로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2	3	4	5
32	여자도 군인이거나 중장비(포크레인, 덤프트럭) 기사가 될 수 있다.	1	2	3	4	5
33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1	2	3	4	5
34	내가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편이다.	1	2	3	4	5
35	남자가 유치원교사나 미용사 같은 직업을 갖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1	2	3	4	5
36	내가 어떤 일들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다.	1	2	3	4	5
37	나는 이제까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1	2	3	4	5
38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지금의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39	처음 원했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의 실패를 의미한다.	1	2	3	4	5
40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	1	2	3	4	5
41	나는 내 진로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42	상황에 따라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1	2	3	4	5
4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44	다소어려운일이생겨도가능한내가스스로해결하려고노력한다.	1	2	3	4	5
45	내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46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때가 많다.	1	2	3	4	5
47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주 생각해 본다.	1	2	3	4	5
48	나는 주위 사람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1	2	3	4	5
49	어떤 직업이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1	2	3	4	5
50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거나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1	2	3	4	5
51	어떤 직업이든 어려움 없는 직업은 없다.	1	2	3	4	5
52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53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다.	1	2	3	4	5
54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1	2	3	4	5
55	관심 있는 학교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는다.	1	2	3	4	5
56	알고 싶은 학교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것들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저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57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청소년상담센터등)을 찾아간다.	1	2	3	4	5
58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1	2	3	4	5
59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서로 비교한다.	1	2	3	4	5
60	여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본 후에 내 진로를 결정한다.	1	2	3	4	5
61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다.	1	2	3	4	5
62	진로결정을 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생각한다.	1	2	3	4	5
63	내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한다.	1	2	3	4	5
64	직업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	1	2	3	4	5
65	직업에 대하여 알아볼 때, 그 직업이 나의 성격이나 흥미와 맞는가를 따져본다.	1	2	3	4	5
6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이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따져본다.	1	2	3	4	5
67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1	2	3	4	5
68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한다.	1	2	3	4	5
69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생각한다.	1	2	3	4	5
70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다.	1	2	3	4	5

부록2. 학업동기검사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 다
1	학교라는 곳이 왜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	1	2	3	4	5
2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	좀 힘들지만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	완전히 공부에 몰입하면 내가 가치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5	나 자신이 유능한 학생이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6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경험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7	공부를 하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8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좋아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9	관심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넓힐 때 경험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0	공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가 기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1	나 자신이 하고싶은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스스로 느끼는 대견함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2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3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4	학교공부는 내게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	1	2	3	4	5
15	학교 공부는 왜 하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1	2	3	4	5
16	선생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7	내가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8	학과 공부를 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9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0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1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2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자체에서 매우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3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즐거움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4	학교공부를 하면서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5	공부는 매우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6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7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28	학교에 다니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낭비이다.	1	2	3	4	5
29	왜 학교에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말로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	2	3	4	5
30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1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2	공부할 때가 가장 내 본분을 다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3	쉽지 않은 학교공부를 해내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4	책의 내용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5	하나라도 더 알아간다고 생각될 때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6	새로운 배울 거리를 찾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7	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훌륭히 달성해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8	학문적으로 뛰어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9	학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0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1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시니까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2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죽지못해 다닌다.	1	2	3	4	5
43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알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신경도 안쓴다.	1	2	3	4	5
44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인간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5	학교에 다녀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6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7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난후에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8	어려운 것을 성취해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9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 좋아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50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경험하는 신나는 느낌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51	공부를 할수록 재미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52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난후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53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54	나중에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55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56	정말로, 나는 학교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나는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1	2	3	4	5